

금감원 설명절 유용한 금융정보 공개

금융감독원이 설명절 동안 은행 탄력접점 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보 5가지를 공개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명절 연휴 동안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은행 등 9개 은행은 전국의 주요 역과 공항에서 탄력접점을 운영한다. 소비자들은 탄력접점에서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특히 국민·우리·KEB하나·농협·부산은행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을 위해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화기기(ATM)가 설치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금감원은 또 교대 운전이 대비해 자동차보험특약을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9개 은행 탄력접점 운영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

차량고장 긴급서비스 이용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제3자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하려는 전날 보험회사 콜센터로 통해 가입해야 한다.

운전 시 타이어펍크, 연료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출발 전에 특

약 가입 여부와 가입한 보험회사의 전화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사실 견인차를 이용하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차한 차를 휴게소 등 가까운 안전 지대로 견인해주는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연휴 동안 해외로 떠나는 소비자는 여행지에서 카드를 분실·도난 당했을 때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국내 입국 후 카드사에 출입국정보 환용

등의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분실카드의 이용이 방지된다. 또 해외에서 현지 통화화 아닌 원화로 카드를 결제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라고 표시돼 있으면 취소 후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명절 기간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막을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주소, 문자메시지 등은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민근 기자

교통사고 보험처리·법규위반 많으면

자동차 보험료 '경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여러 번 보험처리하게 되면, 대폭 늘어난 자동차 보험료 명세서를 받게 될 수 있다.

본인이 설정한 합증 기준보다 금액이 낮은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여러 번 교통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경우에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합증 관련 소비자 민원은 모두 245건에 달한다. 지난 2013년 72건, 전년 132건 등 보험료 합증에 관한 민원은 증가 추세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보험료 과도하게 인상됐다거나, 소액 차량 사고를 보험 처리했지만 보험료가 늘었다는 민원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민원인은 지난해 7월 합증 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사고 금액을 보험처리했지만, 내야할 보험료가 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가입할 때 설정한 합증 기준 금액 이하에서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3

년 이내에 사고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산정되는 보험료는 증가하게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보험회사들이 운영하는 '사고건수별 요율(NCR)'에 따르면 3년 무사고인 경우 합증 요율은 90~100% 수준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수록 합증되는 정도가 커져 사고가 3회 발생하게 되면 160%에 이르는 보험료 합증 요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게 된다.

사고로 처리된 횟수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과 같이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보험사별로 3년 동안 사고가 4회 이상 일어났거나, 2회 이상 중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인수를 거절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의 차량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처리 이력이 있으면, 누적돼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합증될 수 있다"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 여부를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민근 기자



외화 보유액 3개월 연속 감소 달러 강세와 일부 통화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지난해 11월 말 이래 3개월 연속 감소했다.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3672억9000만 달러로 작년 말(3679억6000만 달러)보다 6억7000만 달러 줄었다.

정부, 국내 이란자금 주식투자 허용

무역결제 필요분은 원화계좌 유지

정부가 국내에 묶여 있던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자금의 주식과 채권 투자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는 무역대금 결제에만 사용 가능한 이란 자산에 대해 자본거래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은행에 예치돼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자금은 2조~3조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이란이 경제 제재 상황에 있을 때 국내 기업들과 무역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동안 이란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예치된 자국 자금을 대한 수익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역 결제에만 사용 가능했던 이 자금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당분간 이란의 원화 계좌는 유지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이 동결됐던 자산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무역 결제에 필요한 만큼 원화 계좌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현재 우리 정부에 원화 결제 대체 수단으로 유로화 결제시스템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려면 중간에 달러화 환전을 거쳐야 해 미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정부는 대체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이란,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민근 기자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사기 주의 당부

#최근 신도림테크노비트의 휴대폰 판매점이 "단말기 추가 보조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페이백)"며 고객 100여 명을 유치한 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만 2500만원을 웃돌았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설 기간 전후인 6일부터 14일까지 불법 페이백 주의 기간으로 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방통통신위원회는 불법 페이백이 은밀하게 개별적 거래를 통해 이뤄지므로 분쟁 발생 시 관련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페이백은 불법 행위로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점의 페이백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080-2040-119·www.deant.or.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NH협생명, 고령자 전용 건강보험 출시

NH협생명은 61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행복한실버NH3대질병보험(갱신형·무배당)'을 오는 15일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상품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을 주계약으로 집중 보장한다.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 부담을 줄여 고령자도 쉽게 가입 가능하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7%의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최초계약, 월납 기준으로 61세 여자가 3만6360원, 남자는 6만7660원이다. 10년 만기 갱신을 통해 최고 100세까지 보장되며 만기시 만기환급금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김민근 기자

넷마블, 넥슨에 이어 1조원 매출 달성

게임업체들이 글로벌 사업을 통해 속속 매출 1조원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매출 기반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함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해 1조72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2일 밝혔다. 넥슨에 이어 넷마블게임즈도 게임업계 매출 1조원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넥슨은 일본 도쿄거래소 상장 직후인 2011년 876억원(약 1조2116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국내 게임업계에서 매출 1조원 고지를 점령한 것은 넥슨이 처음이다.

넷마블게임즈는 2015년 매출이 전년대비 88% 늘어난 1조72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18% 증가한 2253억원을 기록했다.

넷마블게임즈의 약진은 해외 시장 덕분이다. 넷마블의 해외 매출비중은 2014년 17%에서 2015년 28%로 증가했다. 특히 4분기에는 약 40%로 확대됐다.

모바일 게임 '모두야마블'은 전세계 2억 다운로드 및 5000억 누적 매출을 기록했다. '세븐나이츠'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매출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디즈니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준비 등 신작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정체되도 글로벌 시장은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힘을 쏟"이라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